

평화를 찾아가는 아름다운 사람들

## 3·4

# 중·등급 범우

민족의 명절인 설을 맞아 지역별로 차그마한 선물과 JTTS에서 후원한 마스크를 전달하였습니다. 코로나는 설 풍경마저도 변화시켰지만, 그래도 설이라 설레이는 마음만은 그대로입니다. (봉지자 동생이 농사지은 깔로 만든 설 떡국떡을 나누며 뿐두하는 광명 좋은벗들의 모습)



(사) 좋은벗들



태어나 백일이 된 우리 예쁜 하은, 하윤, 태율아~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렴 ~

## (사) 좋은벗들



We'll be Goodfriends with All Beings

세상의 누구와도 좋은벗이 되겠습니다

## 글 싣는 순서

### 좋은이웃되기 - 가정 방문

겨울철 건강관리를 위해 과일 드세요   김태윤	4
환하게 웃으며 반겨주는 자연이, 많이 컸구나   이정민	6
1년만의 방문, 아이들은 얼마나 자랐을까   김혜숙	7

### 산모/영유아 지원

하은아, 잘 먹고 잘 자렴   정신국	9
한 달 사이 더 뜰망똘망해졌네   유현주	10
태울아, 백일 축하해   이정원	12
하나야, 건강하게 자라주어 고마워   임순철	14

### 특별 활동 - 설명절 인사

얼굴을 보진 못했지만 설맞이 정을 나눠서 행복합니다   박건희	15
새로운 출발과 도전, 응원합니다   황윤숙	16

## 2021 3·4 통권 130호

펴낸날 2021년 3월 29일 | 만든이 김기연, 김윤정, 손재희, 이승용, 이영미

펴낸곳 좋은벗들 137-875 서울시 서초구 서초 3동 1585-16 Tel 02- 587 -8754

후원문의 02-587-8996 | Fax 02-581-4077(좋은벗들)

디자인·제작 신명기획 02-2273-6128

(사) 좋은벗들은 다툼이 없는 삶을, 남과 북이 서로 이해하고 좋은이웃이 되어 더불어 살아가기를, 또한 모든 생명이 한 데 어울려 평화롭게 살아가는 세상이 되기를 바라며, 이 길에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설명절 전이라 반가웠습니다   최연옥	18
좋은이웃 모두 행복한 설명절 되세요   장민경	19
동생이 직접 농사지은 쌀로 만든 떡국떡을 나누었습니다   서태원	20
이웃들과 연결되는 따뜻한 경험   유미화	22
직접은 아니지만 설맞이 정을 나줘서 행복합니다   이정원, 신미순	25
설이라 쟁겨주는 분들이 많아 훈훈합니다   김태윤	36
작은 선물도 감사하게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동욱	38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을 전하는 설맞이방문   김은선	39
우여곡절 끝에 늦었지만 전달한 설선물   김종호	40

### 통일 정진

간절한 마음으로 통일을 발원합니다   조동열	42
통일과 화합, 세계 평화가 이루어지길   박나현	44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강화 연미정 통일기도   김미현	46
사천왕사지 삼백배 통일 정진   김천호	48

### 후원해 주신 분들

[www.goodfriends.or.kr](http://www.goodfriends.or.kr)



## (사) 좋은벗들은

남한에 정착하는 초기 새터민들에게 밥상과 그릇 등 첫 살림  
살이를 선물하고 가정을 방문하여 이웃으로서 정을 나누어 오  
고 있습니다. 또한 남한 생활이 낯선 그들에게 병원이나 은행 등 공공기관 및 시설들을  
안내해주기도 하고 기쁜 일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같이 나누고 해결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작은 나눔들은 이후 다가올 통일사회에서 남북한 주민들이 서로 좋은 이  
웃으로 함께 살아가는 씨앗이 되어 미래의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통일이라는 열매를 맺  
게 될 것입니다.

## 겨울철 건강관리를 위해 과일 드세요

김태윤 | 파주 운정 좋은벗들

- 일시 : 21년 1월 21일
- 대상 : 백○○님
- 봉사 : 이정화



백○○님은 요즘 몸이 안좋아 병원에 다니며 약을 먹고 계셨습니다.

북한에 있는 아들 소식을 간간히 들었는데, 작년에 배 타고 일을 하다가 사고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합니다. 갑자기 가슴아픈 일을 당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고 식사 잘 하시라고 이야기 나누며, 원하시는 과일을 문 앞에 전해드렸습니다.

- 일시 : 21년 1월 19일

- 대상 : 김○○님

- 봉사 : 김태윤

코로나로 들어가지는 못하고 과일박스를 두고 문앞에서 인사만 나누었습니다. 요즘도 혈압이 있어 머리가 아파 일을 못 다니고 혼자 집에 있는 게 익숙하다는 말에 짠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빵을 좋아하신다길래 겨울이라 호빵을 사다 드렸는데 좋아하시니 제가 더 기분이 좋았습니다.

건강하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 환하게 웃으며 반겨주는 지연이, 많이 컸구나

이정민 | 김포 좋은벗들

- 일시 : 21년 2월 8일
- 대상 : 지연이네



지난 11월 방문 이후 가끔씩 안부 전화만 하다가 모처럼 지연이네를 방문했습니다. 지난번 방문 했을 때, 지연이는 할머니댁에 가 있어서 보지 못했습니다. 지연이를 백일이 갓 지난 무렵부터 봐서인지 커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큰 기쁨이었기에 못 본 사이 얼마나 컸을까 궁금하였습니다. 나를 보기만 하면 올길래, 오늘도 또 올까 했는데, 현관에 도착하여 문이 열리자 밝게 웃는 모습으로 인사를 하네요. 커가면서 더 예뻐지고 애교도 많아졌습니다. 이젠 옮지 않는 걸 보니 많이 컸구나 싶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대화를 나누지 못하고 문 앞에서 인사만 하고 돌아오려니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몸이 불편한 곳이 있어 수술을 해야 하신다니 함께 걱정해드리는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고생했던 후유증인 것 같아 안쓰러운 마음이 듭니다. 그래도 조금씩 안정이 되어 가고 지연이도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 감사한 마음입니다.

# 1년만의 방문, 아이들은 얼마나 자랐을까

김혜숙 | 서울 중랑 좋은벗들

- 일시 : 21년 2월 10일
- 대상 : 유○이네
- 봉사 : 허근애, 유조영

제법 포근한 2월 오후, 1년 2개월만에 유\*이네를 방문했습니다.  
코로나로 모든것이 멈춘 상황속에서 아이들은 얼마나 컸을까하는 기대감  
으로 바쁜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 사이 유\*이네는 옆 동으로 이사했습니다. 수줍어하던 큰아이는 개구  
쟁이가 되었고 누워있던 작은 아이는 따라쟁이가 되어있었습니다.

방한가운데 있는 미끄럼틀에서 쿵쿵쿵! 어찌나 잘 놀던지, 아무래도 아랫  
층에서 민원이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 걱정되었습니다. 유\*이는 아직 말이  
어색해서 언어치료를 다닌다고 합니다. 지난번 방문 때에 어머니가 걱정을  
했는데 결국 치료를 시작했네요. 말을 시켜보니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서 의사소통이 어려웠습니다.

이제 6살이니 점점 좋아지기를 기대해봅니다.



아이들보기 선수인 허근애님이 아이들과 놀아주었는데, 낯을 가리지 않고 와서 안기고 종알종알 말도 잘 하네요. 사진을 찍어준다니까 멋지게 포즈도 취하고, 오랫만에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빨리 마스크없이 마음껏 놀이터에서 뛰어 놀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래봅니다.



# 하은아, 잘 먹고 잘 자렴

정신국 | 인천 검암 좋은벗들



- 일시 : 21년 1월 18일/2월19일
- 대상 : 고○○님 댁

연년생을 키우는 하율/하은이 엄마인 고○○님은 작년 크리스마스와 올해 새해 인사를 시부모님께 먼저 받을 정도로 정신없이 지냈다고 합니다. 전화 통화하며 아이들 이야기도 하고 코로나가 끝나 대면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둘째 하은이가 벌써 백일이 되었습니다.

설날 연휴 끝나고 바로 15일이 하은이 백일이라서 설날 전에 소통하였습니다.

백일 때 받고 싶은 선물을 물어보니 분유라고 하여 지원하였습니다.

하은이 백일을 축하하며, 건강하게 잘 자라기를 바랍니다.



# 한 달 사이 더 뜰망똘망해졌네

유현주 | 군포 좋은벗들

- 일시 : 21년1월 24일, 2월 16일

- 대상 : 최○○님 댁

아기를 안고 문을 열어 주시며 선뜻 들어오라 하셨지만, 코로나로 들어갈 수는 없어서 분유만 전해드리고 건강히 잘 지내시라 하고 돌아섰습니다.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에 매달 분유 두 통이 작다면 작다고 할수도 있겠지만, 저한테는 엄청 큰 도움이 됩니다.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있습니다.’라고 감사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마음이 전달됩니다.

보내주신 사진으로만 아기를 보았는데, 한 달새 살도 많이 오르고 더 뜰망똘망해진 모습입니다.



하윤이가 세상에 온 지 백일이 되었네요.

손님 없이 가족만 모이고 조촐하게 마련한 백일상이지만 엄마는 준비한다고 몸살났다고 합니다.

엄마의 정성을 알기라도 하는 양 백옥 같은 피부의 하윤이가 화사하게 웃으니 봄을 알리는 매화꽃이 연상 됩니다. 하윤이 오빠는 중국에서 학교 다니다 고등학교부터 여기서 생활했는데 적응을 못해서 다시 중국으로 갔습니다. 아들에 대한 미안함에 하윤이는 더 잘 키워야한다는 말씀하시는 최○○님의 마음을 같은 엄마 입장에서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륜스님이 쓰신 ‘엄마수업’을 선물해 드렸습니다.

행복한 엄마와 하윤이를 그려봅니다.

# 태율아, 백일 축하해

이정원 | 시흥 좋은벗들



- 일시 : 21년 1월 17일, 2월1일, 3월4일
- 대상 : 박○○님 댁
- 봉사 : 신미순

박○○님 아기가 태어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백일입니다.

박○○님은 몇 주 전부터 어려운 상황을 겪고 계신터라 본부와 상의하여 선물대신 현금으로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방역수칙을 지키기 위해 손님이 계신 시간을 피해서 잠깐 들러 아기 얼굴만 보고 축하하였지요.

태율이는 며칠 사이에 볼살이 통통하게 올라 귀엽고 예뻤습니다.

주변이 불안정한 상황이지만, 태율이가 그저 건강히 잘 커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안고 문을 나섰습니다.

- 태율이가 워낙에 분유를 잘 먹어서 방문날짜 보다 빨리 배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방문해서 태율이가 커가는 모습을 보고 싶었지만, 제가 병원 입원중이라 택배로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보내준 사진의 태율이는 지난번보다 볼살도 통통하고 훌쩍 자란 모습이었습니다.

박○○님은 오히려 제 건강을 염려하며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 박○○님 댁을 방문하니 아기 태율이가 새근새근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나날이 쑥쑥 커가는 모습에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노라니 태율이가 깨서 방긋 웃어 주니 너무 귀엽고 신기했습니다. 박○○님은 힘든 내색은 전혀 하지 않고 ‘사람 사는게 다 그렇지요’하며 웃음지어 주셨습니다.

약간은 안쓰러운 마음이 있었지만 더이상 깊은 대화를 나눌수가 없었습니다. 늘 감사하다며 중국에서 보내온 선물을 나누어 먹자고 하시면서 한사코 손에 쥐어 주어 받았습니다.

짠하고 미안한 마음으로 문을 나서는데 아기를 안고 문밖까지 나와 배웅을 해주셨습니다.

박○○님의 안녕을 기원합니다.



# 하나야, 건강하게 자라주어 고마워

임철순 | 광주광산 좋은벗들

- 일시 : 21년 2월 24일
- 대상 : 하나네

하나가 영아라서 집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문앞에서 분유를 전달하였습니다. 코로나가 종식 되면 들어가서 하나도 하진이도 볼 수 있게 되겠지요. 그래도 두 아이는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설은 어른아이 할 것이 모두 설레는 명절입니다. 전국의 좋은벗들은 설을 맞이하여 조그만 선물을 마련하여 지역내 좋은이웃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 얼굴을 보진 못했지만 설맞이 정을 나눠서 행복합니다

박건희 | 수원 좋은벗들



- 일시 : 21년 1월 31일~2월3일
- 대상 : 평택 내 18가정
- 봉사 : 박준, 윤영섭

코로나 19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설선물을 준비하면서 정을 나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직접 대면을 만날 수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택배라는 편리한 세상에 살고 있음에 감사하였습니다.

좋은이웃들이 행복한 명절보내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 새로운 출발과 도전, 응원합니다

황윤숙 | 부천소사 좋은벗들

- 일시 : 21년 2월 4일, 2월 6일, 2월 7일
- 대상 : 5가정
- 봉사 : 차근이, 한옥희, 김기순, 박선영, 황윤숙

- 김○○님은 재봉을 배워서 봉제공장에 취직하였는데, 자신에게 딱 맞고 재미있다며 밝고 아무진 모습이었습니다.
- 중국 한족 남편이 몇 개월 들어와서 같이 사는데, 한국어를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니 아이 둘을 키우는것 같다고 하소연합니다. 아이는 아빠랑 같이 있어서 그런지 몇개월 사이에 얼굴이 편안해보였습니다.
- 기○○님은 지난번 추석 때 허리가 아파서 병원다녔는데, 이번에는 속이 안좋아서 병원에 다니고 있다고 하네요.

- 김○○님은 반도체 공장에 취직하여 새벽 6시까지 출근해야 해서 기숙사에 들어간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일에 열심히 해보려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 장○○님은 3월부터 시작되는 신학 공부를 좀더 할 예정이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활용해서 취업하겠다고 합니다. 지원금이 적지만, 아껴쓰며 지낼만하다고 하네요.



# 설 명절 전이라 반가웠습니다

최연옥 | 울산 좋은벗들

- 일시 : 21년 2월 6일
- 대상 : 10가정 (대문 앞 배달)
- 봉사 : 최연옥, 최현선



코로나19로 이웃 분들 현관 앞에서 선물을 전달하였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내어주시는 어르신 한 분 한 분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지요. 젊은 분들은 코로나로 일자리가 줄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야기하며, 명절 때 마다 잊지 않는 좋은벗들에 감사를 전하셨습니다. 코로나로 이웃분들이 대부분 집에 계시니 직접 전달을 할 수 있었습니다. 걸림 없이 함께 해준 최현선 님 덕에 행복했습니다. 감사하다며 사과 3개를 주셨습니다. 받아도 되나 싶었지만, 서로의 정을 나누는 것인데 하며 감사히 받아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서로 정을 나누며 통일을 경험하였습니다.

# 좋은이웃 모두 행복한 설명절 되세요

최옥분 | 부천 좋은벗들



- 일시 : 21년 2월6일
- 대상 : 10가정
- 봉사 : 김향임, 손은순, 김은희, 지은영, 최옥분

사전 통화를 하였지만 외출하신 분들이 많아 선물을 현관문에 걸어두고 사진을 찍어 문자와 함께 전달하였습니다. 집에 계신 분께서 들어오라고 하셔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고 나오려고 했는데, 이야기가 길어지셔서 얼른 나올 수 없었습니다.

함께 한 분들의 소감 전해드립니다.

- 밝은 모습의 좋은이웃을 보니 우리는 같은 이웃이구나 하는 걸 알게되어 행복했습니다. 모두들 행복하게 잘 적응하시고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 멀게 느꼈는데, 우리는 이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통일기도도 더 정성들여 해야겠습니다.
- 예전에 만났던 좋은이웃의 소식이 궁금했었는데, 소식을 듣게 되어 반가웠습니다. 행복하게 잘 적응하시기를 바라봅니다.

# 동생이 직접 농사지은 쌀로 만든 떡국떡을 나누었습니다

서태원 | 광명 좋은벗들

- 일시 : 21년 2월 7일
- 대상 : 12가정
- 봉사 : 이상진, 이휘영, 서태원, 양강희, 박미애, 오현, 홍성정, 이미화

## 활동 소감

- 일요일 종일 방문활동으로 시간이 후딱 갔습니다. 편안한 일요일도 좋지만 봉사로 빠듯한 봉사는 항상 좋은기운과 추억을 줍니다.
  - 긴장을 했는데 친근하고 따뜻한 느낌이었습니다. 전달에 익숙해지니 끝나서 아쉬웠습니다.
  - 저희집 떡국을 하면서 좋은이웃들이 생각나 나눔을 준비했습니다. 여동생이 농사지은 쌀을 보내주어 쌀이 많은데 두루 나눌수 있어 좋았습니다. 포장 전달하신 봉사자들께 감사드립니다.
  - 포기할까 생각했는데 기꺼이 마음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잘 마무리 했습니다.
-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하세요.



# 이웃들과 연결되는 따뜻한 경험

유미화 | 서울 노원 좋은벗들

- 일시 : 21년 2월 6일~9일
- 대상 : 5가정
- 봉사 : 한승희, 김용안, 정순금



## 한\*\*댁 방문

선물도 선물이지만 이렇게 관심을 갖고 연락주고 찾아주는 마음이 고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니 한\*\*님께서 “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맛난 김치 처음이에요. 너무 행복한 거 같아요. 김도 명절에 손주들과 잘 먹을게요. 은혜 잊지 않고 오래 기억할 겁니다. 선생님, 행복한 명절 되세요”라는 문자를 주셨습니다.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궁금했는데 얼굴이라도 보니 안심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안전하게 차라도 마시며 여유 있게 이야기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좋은벗들 활동을 통해 명절에 이웃과 함께 연결되는 따뜻한 경험을 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 효\*네 군\*네

설이라 고기와 떡, 마스크와 집에 들어온 파일을 갖고 효\*네를 먼저 방문했습니다.

효\*맘은 택배일을 하느라 몸은 아프다 하지만 역시 오늘도 씩씩합니다. 가끔 지나친 농담할 때도 생기니 친구 같습니다.



구\*이 동생들이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보아왔는데 6학년이 된다네요. 음악에 맞춰 춤추는 군\*아이들 순수하고 발랄하기가 여전합니다. 오랜만에 간 저를 기억해주네요. 함께 딸기밭에 갔던 일, 체육회 등 즐겁게 담소를 하고 나왔습니다.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열심히 사는 두 분을 뵈니 수행자가 따로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 고\*네 은\*네 방문

은\* 엄마가 일이 끝나는 시간에 맞춰 저녁에 방문했습니다. 활짝 웃으며

반겨줍니다. 4학년 올라가는 은\*의 교육에 관심이 많습니다. 지난 번 방문 때 책 읽어주기를 권했더니 책도 사주셨네요.

윗 동네서는 학년이 바뀌어도 선생님도 아이들도 그대로 올라가는데, 여기는 반 아이들을 섞고 선생님도 바뀌는 게 혼란스럽다고 해서 장단점에 대해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래 머물 수 없어서, 카톡으로 가끔 상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 곳에 온 지는 3년이 채 안되었지만, 은\* 아빠 일도 자리를 잡고 가족이 안정된 느낌이 들어서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고\*네 엄마가 오랜만에 밝은 목소리로 맞이합니다. 요즘 계속 우울하다며 전화를 주고 받을 때도 힘든 마음을 얘기했는데, 얼마전 혼자 내려온 고향 친구가 찾아왔다고 좋아합니다. 설 명절을 함께 지내기로 했다며 고향에서 먹던 명절음식을 같이 만들고 있었습니다. 고향에서는 ‘줄과’라고 부른다는데 쌀로 반죽을 해서 만두피처럼 만들어 방에 널어 놓은 것이, 기름에 부풀려 옛과 튀밥을 묻힌다는 설명을 들어보니 넓적한 유과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내가 못 먹고 가서 아쉽다고 하더니 오늘 오라고 전화를 했습니다. 마음과 사진으로 대신 받기로 했습니다.

집에 사람이 오면 좋아한다는 고\*가 특별 공연을 했습니다. 유튜브를 틀어놓고 춤을 추면서 땀에 흠뻑 젖었는데도 하나만 더 보고 가라며 자꾸 잡았습니다. 우울한 명절을 보낼까봐 걱정했는데, 모두들 웃는 모습을 보니 좋습니다.

# 직접은 아니지만 설맞이 정을 나눠서 행복합니다

이정원, 신미순 | 시흥 좋은벗들

- 일시 : 21년 1월 31일, 2월1일, 2월6일, 2월7일, 2월10일~12일, 3월4일
- 대상 : 19가정
- 봉사 : 김병선, 김명임, 지서연, 김명신, 이태자, 이명은, 신미순, 이정원

21년 1월 31일 / 조00 님, 김○○ 님과의 만남

조○○님이 쉬는 일요일에 약속해서 잘  
뵙고 왔습니다. 들어와 차 한잔 하라고 하  
시는데, 그냥 차 안에서 그간 생활한 이야  
기 들었습니다. 딸이 초등학교1학년 올해  
입학이고 중국이 열악하여 한국으로 데려  
오려 하는데, 설 지나고 코로나 상황이 좀  
풀리면 딸을 데리러 중국으로 들어가실 예



## ● 특별 활동 – 설명절 인사

정이라고 합니다.

김○○님은 옆에 좋은 인연이 생기시면서 이사를 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구 시가지 쪽의 저렴한 아파트를 한번 알아보시라고 알려드리니 신경써줘서 감사하다고 하십니다. 김명임님과 둘이 기분좋게 선물전달 잘하고 왔습니다.



### ● 21년 2월 1일 / 주○○ 님과의 만남

방문 가정 중 유일하게 남자 분이신 주○○님을 아파트 앞에서 잠깐 이야기하며 뵙고 왔습니다. 한국사람들이 새터민에 대한 편견이 있거나 ‘나와 다르다’는 식으로 말할때 서운하다는 이야기를 하시네요. 그래도 할말 하며 씩씩하게 잘 지내고 계신 것 같아 마음이 놓이고 밝은 모습이 감사했습니다.



### (방문 소감)

- 첫 만남이지만 사람은 다 똑같겠지 하고 편견 없이 갔습니다. 본인의 생활을 편안하게 말씀해주시니 북한사람 한국사람 마음의 벽이 없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고, 부담없이 정이 가고 마음이 편했습니다.
- 늘 친절하게 챙겨주셔서 어려워도 힘을 낸다면 웃으시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다. 그동안 잘 챙기셨을 연락담당 김병선님 모습도 떠올라 감사했습니다.

### ● 21년 2월 6일 / 백○○ 님, 박○○ 님과의 만남

백○○님 댁에서 박○○님과 함께 뵈었습니다. 돌을 잘 넘긴 수연이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여기저기 잘 걸어다니고, 갓난쟁이 태율이는 몇 달 사이 쑤욱 커서 끌망똘망하게 반겨주니 시간이 참 잘가는구나 실감합니다. 어떻게 지내셨는지 안부를 주고받고 아이 낳은 엄마들만의 이야기도 공유하며 잠시나마 서로를 알아가는 정겨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 ● 21년 2월 6일 / 최○○ 님, 전○○ 님과의 만남

최○○님과 9살된 딸아이 민주를 만나고 왔습니다. 최○○님이 이제 일을 해야 해서 민주는 곧 기숙사로 가게 된다니 좀 아쉽기도 했지만, 후에 또 홀쩍 큰 모습 볼 수 있겠구나 합니다. 민주가 낮선곳에서 잘 적응하기를 바랍니다.



## 특별 활동 – 설명절 인사

전○○님은 얼마전부터 부업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일머리가 없고 늦다며 걱정어린 목소리로 말씀하셨었는데, 이제는 제법 일에 속도가 붙었으며 웃으시는 모습을 보니 반가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적응해나가는 모습들이 참 감사합니다.

### (방문 소감)

- 이런저런 이야기 들으며 최○○님은 동생처럼 염려되는 마음이 좀 들기도 했지만, 두 분 다 이야기를 잘 하셔서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 이제 오고감이 한 결 더 편안함을 봅니다. 동년 배인 봉사가가 같이 와 이야기 나누니 분위기가 더 편하고 좋습니다.



### ● 21년 2월 7일 / 최○○ 님과의 만남

늘 반갑게 맞아주시는 최○○님을 뵙고왔습니다. 몸이 좋지 않아 물리치료 받으러 다니며 집에서 쉬고 계시지만, 그래도 항상 표정이 밝고 씩씩 하시니 배울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건강이 참 중요하다는 여러 이야기들을 정겹게 나누다가 일어납니다. 문밖에 나와 모습이 보이지 않을때까지 배웅해 주시는 최○○님의 한결같은 모습에 마음이 따뜻합니다.



### (방문 소감)

- 모처럼 와서 반갑고 좋았고, 한편으로는 몸이 여기저기 안 좋다고 하시니 마음에 걸립니다. 건강하고 편안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코로나로 활동이 조심스웠는데, 오랜만에 이태자님이 같이 올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 ● 21년 2월 6일 / 조○○ 님과의 만남

얼마 전에 수원으로 이사하신 조○○ 님께 택배로 선물을 배송했습니다. 늘 반갑게 통화하고, 좋은벗들 일정에도 참석해 주시던 고마운 분이라 종종 통화도 하고 가끔 인연따라 만나며 지내기로 했습니다. 수원에서 시작하신 일이 힘들기는 하지만 계신분들이 잘 쟁겨주셔서 좋기도 하다며 웃으십니다. 건강히,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 21년 2월 10일 / 채○○ 님, 박○○ 님과의 만남

내가 한 게 별로 없는것 같은데 이분들에게 항상 고맙다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저번 추석때만해도 좀 서먹했는데 이번 설에는 굉장히 가까워진 느

## ● 특별 활동 – 설명절 인사

낌입니다. 지금까지 일방향으로 전화를 했다면 오늘은 쌍방향적으로 답이 와서 서로 소통하는 느낌입니다.

가끔이라도 봉사할 수 있어 좋고 뿌듯해집니다. 빨 때마다 반가워해주셔서 고마웠어요. 내가 가진거, 자유로움을 얼마 나 만끽하고 있는지를 또 잊어버리고 투정하다가 참회의 마음이 듭니다.



### ● 21년 2월 10일 / 김○○ 님과의 만남

방문한 날이 마침 김○○님 생일이라고 하십니다. 도착하니 하나원 같은 기수 친구분과 함께 계셨습니다. 친구분이 계신곳은 서울 봉천동인데, 좋은벗들과 인연을 원해서 알아봐드리기로 했습니다. 과일을 깎아주셨는데 함께 먹지 못해 죄송한 마음과 아쉬운 마음 전했습니다. 함께 의지하며 즐겁게 지내는 모습에 마음이 좋았습니다.



## ● 21년 2월 12일 / 박○○ 님, 김○○ 님과의 만남

박○○님 오랜만에 뵈어서 참 좋았고 전보다 밝아지신 모습이 좋았습니다. 일도 열심히 하고 계시고 세워둔 나름의 계획도 있으시고, 잘 적응하여 이 땅에서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마음 들었습니다.



김○○님도 인상이 너무 좋았어서 다른 분인 줄 알았습니다. 서글서글하게 밝아지신 얼굴 보며 곁에 있는 딸과 사위와 손녀 덕분인가 싶었습니다. 김명신님께서 잘챙겨 주셔서 좋은벗들과의 인연도 편안해지셨구나, 많이 감사했습니다.

어제 박○○님께 ‘신경써주고 응원해주시니 감사하다’는 문자를 받고 마음이 참 좋았습니다. 그동안 해왔던 것이 헛된 일이 아니었구나, 이제는 이 분들이 나를 믿고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 주시는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고, 꾸준히 지내온 시간을 무시 못하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러고 뵈니 더 가까워진 것 같고 편안했습니다. 박○○님은 조금 더 챙겨서 의지처가 되어드렸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고, 김○○님은 명절에 가족들과 북적북적 있는걸 보니 좋고 뿌듯한 마음이었습니다.

● 21년 2월 12일 / 이○○ 님, 윤○○ 님과의 만남

이○○님 댁 근처 지나는 길에 마침 안부카 톡을 주셔서 전화하며 들려서 뵈었습니다. 늘 쟁겨주셔서 감사하다며 주섬주섬 마른버섯 한 봉지를 꺼내서 쥐어주시는 마음이 참 고맙습니다. 남편분이 사고가 나서 입원한 상태였는데 심한 사고는 아니라 다행스러웠습니다. 이○○ 님도 남편분도 모두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남편 분과 멀리 경북에서 일을 하고 몇 달에 한번씩 집으로 돌아오시는 윤○○님. 설을 맞은 덕분에 오랜만에 뵈었습니다. 늘 빨 때마다 씩씩하신 모습이 인상적인 분입니다. 중국인인 남편 분의 관광비자가 곧 끝이나서 4월이면 다시 들어가셔야 한다니, 비자 받는 일이 쉽지 않구나 안타깝기도 합니다. 방문때마다 먹을 걸 내어주시는데 먹지 못하니 죄송스런 맘 들었습니다. 코로나가 잘 해결되어가길 바라봅니다.



## ● 21년 2월 9일 / 김○순 님과의 만남

김○순님과는 2019년 12월에 뵙고 1년 넘게 전화 통화 연락만 하다가 두번째로 뵈면서 그동안 정이 들었는지 서로 안아주며 반갑게 인사를 나눌수 있었습니다.

김○순님은 1년 전보다 마음도 많이 안정되고 건강해 보였는데, 북에 두고 온 딸 소식을 1년 넘게 들을 수가 없으니 먹을 것이 있어 도 딸 생각에 제대로 입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시며 눈시울이 붉어지십니다. 늘 본인보다 상대방을 먼저 걱정해주시는 김○순님을 설연휴중에 시간이 되고 해서 여차저차 하여 오늘은 봉사를 함께 해주시는 이태자님 댁에서 뵙기로 하였습니다. 준비한 선물 김과 JTS에서 보내주신 마스크를 전달하면서 오순도순 이야기 끝에 함께 가보자 하는 의미를 담아 나누기도 같이 할수 있었습니다.



### (방문 소감)

- 김○○님 우리집에 와서 처음으로 만나보니 반갑고 설레고 이렇게 만나니 더 좋습니다. 힘든 데서 어렵게 넘어왔으니 잘 살기를 바라고 직장에 가서 직장 동료들하고 원활하게 잘 지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김○순님 말씀)

## 특별 활동 – 설명절 인사

- 선생님께서 잘 해주셔서 디저트에 차까지 대접해 주시니까 어머니가 해 주신 고향의 손 맛이 났습니다. 친형제처럼 돌봐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하고 대한민국에 감사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저도 정토불교대학에 다니고 싶습니다.

### ● 21년 2월 22일 / 윤○○ 님과의 만남

윤○님은 직장생활로 시간이 여의치 않아 부득이 하게 출근전 잠깐 볼수 있었습니다. 항상 밝은 모습에 예쁜 얼굴과 가냘픈 몸으로 늘 반갑게 맞이 해 주십니다. 요즘은 코로나로 인하여 3일에 한번씩 출근을 안한다고 한다면서 걱정을 하고 계셨습니다.

남편 분은 여전히 현장일을 잘 다니고 계셔서 참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준비한 선물과 JTS에서 보내주신 마스크를 전달하면서 좋은벗들 소식지도 같이 전해 주었습니다. 소식지에 본인이 나왔다고 어찌나 좋아하던지~ 감사한 마음과 함께 기뻐하며 사진을 예쁘게 찍어 달라고 하시며 잠시나마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법륜스님의 희망편지도 가끔씩 보내 드리는데 좋은 말씀에 힘이 된다고 하십니다. 윤○님 출근길에 함께 문을 나서면서 항상 행복해 지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안고 서로 인사 나누며 보람된 아침을 보냈습니다.



## ● 21년 3월 4일 / 송○○ 님과의 만남

송○○님과는 아래저래 서로 바쁜 관계로 날짜를 잡을수가 없었습니다.

송○○님은 늘상 하시는 말씀이 우리 사업장 마당을 오시고 싶어 하셨는데 이번에 기회가 되어 우리 마당에서 뵙기로 하였습니다. 궁금한게 많은지 이런저런 것들을 물어보시며 한국 사회의 돌아가는 실정을 이해하는듯 좋아 하셨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배워 컴퓨터 자격증도 취득하고 해서 다음주 부터 새로운 일자리 사무직으로 첫출근 하게 되었답니다.

남편과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이 자랑스럽습니다. 먹고 사는데는 걱정이 없는데 북에 두고온 어린 딸을 코로나로 인하여 소식을 들을수가 없어 큰 걱정을 하고 계셨습니다.

딸과 기약없는 이별의 가슴을 어루만져 드리고 싶은 마음에 그냥 등을 두드려 드리며 서로 인사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코로나가 종식되어 딸 소식이라도 들을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 설이라 챙겨주는 분들이 많아 훈훈합니다

서동욱 | 진주, 사천 좋은벗들

- 일시 : 21년 2월 10일
- 대상 : 2가정
- 봉사 : 이정화, 김태윤

백○○님은 전도사가 되고 싶다고 열심히 교회 다니시다 코로나로 못나가고, 자주 찾아오던 교회에서도 방문이 없어 종일 집에만 있다고 하셨습니다. 늘 이렇게 후원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셔서, 설 명절 잘 지내시라고 이야기 나누고 문앞에서 전달하고 왔습니다. 답답하고 외로움에도 건강히 잘 지내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항상 밝은 목소리로 반겨주시는 김♥♥님, 가족들이 중국에 있어 설명절에도 혼자 지내신다는 말씀에 짠한 마음입니다. 김치로만 식사를 하시는데 김치가 다 떨어졌다는 말씀에 김치 두봉지와 여러 과일을 준비해서 집앞에서 잠깐 얼굴을 뵈었습니다. 집에 있는 가래떡을 드리려고 여쭤봤더니 교회에서도 떡국떡과 여러가지 먹을것을 많이 보내왔다는 말씀에 주변에서도 이렇게 챙겨주시니 감사한 마음이였습니다. 건강하시고 설명절도 잘 보내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 작은 선물도 감사하게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동욱 | 진주, 사천 좋은벗들

- 일시 : 21년 2월 11일(진주), 13일(사천)
- 대상 : 진주 27가정, 사천 26가정
- 봉사 : 백은영, 서동욱

2주전부터 문자로 안부인사겸 가정방문이 가능한 가구를 파악하여 선물 세트를 주문하였습니다.

이번 설연휴는 날씨가 따뜻하여 나들이 삼아 진주지역부터 방문을 시작 하였습니다.

코로나의 여파는 좋은이웃들에게도 고스란히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일용 칙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일자리가 없어서 집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모두가 힘든 시기라 그런지 더욱 반갑게 맞이해 주시며, 작은 선물 임에도 너무나 고마워 하셨습니다.

‘종이 한장을 줘도 고맙습니다’라는 말씀을 약속이나 한듯이 많이들 하셨는데 내내 마음 속에 남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집에서 쉬어서 그런 지 이번에는 몸이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은 안 계셔서 작은 위안으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각자의 고향에서 온식구가 모여 오손도손 명절을 보내는 날이 오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을 전하는 설맞이방문

김은선 | 서울 성동 좋은벗들

● 일시 : 21년 2월 19일

● 대상 : 2가정

백\*\*님은 지난 추석부터 지원하게 된 신규 좋은이웃으로 여러 차례 감사하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특히 이\*\*님은 ‘코로나로 모두 힘드신데도 귀한 설명절 선물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정토희(좋은벗들) 모든 분들이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라는 사랑스런 메시지를 전달해 주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아직까지 직접 뵙기 기회가 없었지만 곧 얼굴뵙고 반갑게 인사 나눌 날을 기다립니다. 좋은이웃들이 어려운 시기를 힘차게 해쳐 나가시도록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 어려움을 나눌수 있어서 뿌듯했습니다.

# 우여곡절 끝에 늦었지만 전달한 설선물

김종호 | 인천 좋은벗들

- 일시 : 21년 2월 19일
- 대상 : 5가정
- 봉사 : 이승우, 김윤정

우여곡절끝에 조금 늦은 설명절 선물을 비대면 전달할수있어 다행이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주○이네와 지○이네는 김윤정님께서 배달 전 소통해 주셨습니다.

서○이네는 오랜만에 전화통화로 안부를 여쭤봤는데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하셨다고 합니다. 좋은 일자리와 연결이 되었으면하는 마음입니다

쌍둥이네는 피곤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으셔서 명절 선물 맛있게 드시라고 짧게 인사만 나눴습니다.

한○이 어머니는 아주 반갑게 전화를 편하게 받아주셨습니다. 끝까지 명절선물까지 챙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좋은벗들 활동하는 동안 직접 뵙고 친분을 많이 쌓지 못해 아쉬움이 있지만, 선입견이라는 안경을 벗을수 있는 시간이기도 해서 짧지만 좋은 경험 이였습니다.



한○이네



서○이네



쌍둥이네



주○이네



지○이네

통일 정진은 개인법당에서 온라인으로도 진행되며 강화 연미정, 사천왕사지에서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진행중인 우리들의 정진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 간절한 마음으로 통일을 발원합니다

조동열 | 안산 좋은벗들

- 일시 : 2021년 2월 28일 6:00~
- 장소 : 개인법당
- 참석 : 월광법사님, 박태홍, 박희준, 문옥선, 정재연, 박미화, 서지영, 서형덕, 이시일, 이동림, 카오리, 고려인, 조동열 (13명)

### 참가 소감

- 내일 삼일절 정신을 온 국민이 상기시켜 한 뜻이 되길 바랍니다.
- 천지 사진을 가상화면 배경으로 사용한 것을 보니, 동북아 역사기행때 천지 를 제대로 못봤는데 빨리 육로로 가고싶습니다.

- 통일 발원문을 함께 읽으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할수 있는 계기를 준 것 같다.
- 평화열차 단체에 속해 있는데 세계 속에 최고의 한민족이 될수 있도록 단체의 일원으로 활동 해야겠다.
- 그동안 통일기도를 기계적으로 했었는데 이제라도 간절한 마음으로 해야 겠다 다짐해 봅니다.
- 발원문을 되뇌이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 오랜만에 통일기도 참석했습니다. 함께해서 좋았습니다.
- 기도하면서 한반도 한민족의 번영을 발원 했으며 통일발원을 기원 했습니다.
- 정진할 때 남과북의 평화와 통일을 발원하며 기도 했습니다.



# 통일과 화합, 세계 평화가 이루어지길

박나현 | 고양 덕양 좋은벗들

- 일시 : 2021년 3월 6일 7:00~
- 장소 : 개인법당
- 참석 : 김미성, 김현옥, 박나현, 석미옥, 정미자, 한미영

## 참가 소감

- 정진에 참여하면서 그동안 안일하게 살아 왔던 날들이 돌이켜져 미안한 마음이 컸습니다.

북한 체제나 미안마 사태에 비하면 내 상황은 얼마든지 지혜롭게 풀어갈 수 있는 일인데 어리석음과 욕심, 분노로 스스로를 해하는 시간을 보냈음을 마음 깊이 참회합니다.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고, 지혜를 닦아가기를 발원하며 내가 먼저 이해하고 먼저 화해하고 먼저 손 내밀겠습니다. 함께 할 수 있어 고맙고 감사합니다.

- 통일정진을 하면서 지난번 다큐영화 히말라야 소년의 꿈 영화를보고 마음이 아프고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발원문중 '절제와 만족을 계율로 삼아 화합과 평화롭기를' 하는 구절을 보고나니, '나는, 우리는 풍족해서 넘치는데

도 불구하고 더 많이 가지려 하고 있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고, 미안마 사태도 하루 속히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발원했습니다. 함께하는 이 길이 참 좋습니다.

- 오늘 통일담당자임을 놓치고 여러번 알려주는 동료들 얘기를 귀담아듣지 못하는 나를 보니 주변을 돌아보지못하는 나, 나에게 집중되어 있는 나를 봅니다. 어린애같은 의식에서 좀더 성장해나가야겠다는 참회와 우리나라의 통일과 화합, 세계 평화가 이루어지길 발원하며 기도 마쳤습니다. 도반님들과 함께 하니 감사한 마음입니다.
- 발원문을 읽을 때의 간절한 마음이 절을 하면서는 어느새 할 일에 대한 생각에 빠져들곤 합니다. 이는 명상할 때 호흡과 망상을 오가는 것과 같아 지금의 제 상태를 분명히 알겠습니다. 그래도 꾸준히 정진하여 발원문의 말씀처럼 평화와 통일의 지혜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지금 마음 가볍고 힘이 납니다.
- 개인사정으로 두 주간 쉬고 하니 하기 싫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런 내 마음 상태를 들여다보며 정진했습니다. 중간쯤부터 아이에 대한 걱정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하고 있는 나를 보고 ‘아... 내 습이구나 … 문제를 내가 다 해결하려고... 내뜻대로 해야하는 마음이 또 올라오는구나.’ 알아차리며 정진을 마쳤습니다. 동료들이 있기에 정진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함께 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강화 연미정 통일기도

김미현 | 인천 좋은벗들

- 일시 : 2021.02.27(토) 오전9:30
- 장소 : 강화 연미정
- 참석 : 김미현, 김원배, 김명주(보승화), 위라미 총4명

## 나누기

- 날씨가 한몫을 했습니다. 작년 12월에 웓을땐 추워서 정신이 없었는데 오늘은 날씨가 따뜻하니 좋고 마음도 여유가 생겨 발원문도 잘 새기며 기도했습니다. 온라인으로 통일기도할때와 다르게 직접 와서 기도하니 여운이 오래갑니다.
- 동인천 지역 차례인데 이렇게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감사하고 주인으로 산다는게 이런게 아닐까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일상에서 통일의병으로 사는게 어떨지에 대해서 생각했고, 해탈주 할때는 이 앞에서 전쟁때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고 하는 얘기가 생각나 애틋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 날씨가 포근해서 좋았고 정근은 오랜만에 하니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면서 해안가로 철조망이 쳐져있는 걸 봤는데 얼른 철조망이 걷혔으면 좋겠습니다.
- 오랜만에 오프라인 기도를 오는데 오기 전 준비과정부터가 좋았습니다. 서로 소통하여 소임나누고 공양물 준비하고 그리고 아침 일찍 출발하고 하는 이런 과정이 정성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었구나, 이런 걸 할 수 있어서 좋고 감사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는 평상시엔 통일에 대한 생각을 잊고있다가 여기에 와서야 기도하니 죄책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 사천왕사지 삼백배 통일 정진

김천호 | 울산 좋은벗들



- 일시 : 2021.02.28(일) 06:00~07:30
- 참석 : 총 25명

(사천왕사지 참석 7명)

울산 : 김천호, 정경례, 문미경, 문미향

해운대 : 전진수, 강기욱

방어 : 서명주

(온라인 참석 18명)

반여 : 이동하, 원미혜, 이영옥, 남훈조, 남명희

수영 : 손유민, 이하윤

울산 : 허영애, 장숙희, 임순화, 전소현

방어 : 김연숙, 김춘자, 안영미, 최연옥

명지 : 하찬순

대구 송현 : 김영희

동래 : 이동현

## 참여 소감 나누기

- 최저온도 영하 1.5도. 하지만 명상중 따뜻한 봄기운이 느껴지네요
- 염원을 담아 우리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기도에 동참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한땀한땀 수를 놓아가듯 기도와 염원이 누리에 따뜻한 기운을 채워 가리라 믿습니다. 살아 있어서 기도하는 지금이 행복인 줄 알겠습니다. 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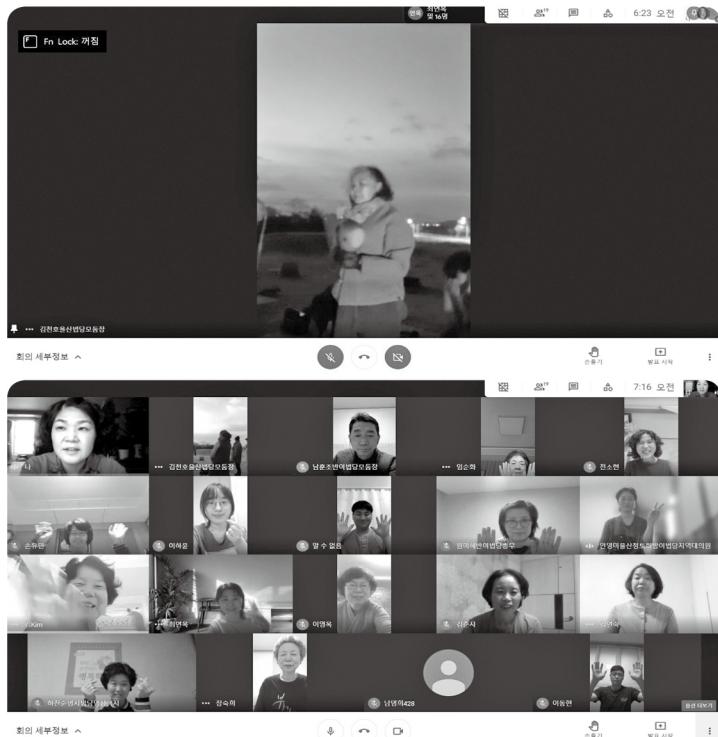
늘도 감사히 잘 쓰이겠습니다.

- 이른 새벽 300배정진하며 남북이 하나되기를 기원하는 사천왕사지 현장과 도반들과 화합 · 평화 · 통일기도 절실한 마음 담아, 북녘 땅을 그려보는 아침입니다.
- 사천왕사지 통일기도까지 온라인으로 하니 편해서 좋았지만 현장감과 간절함의 아쉬움은 어쩔수 없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오늘도 특별한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 처음으로 구글미트로 사천왕사지에 참여해보니 편한 마음도 있지만 불어오는 바람, 흔들리는 풀잎, 밝아오는 태양, 칙칙폭폭 기차소리 도반의 음성과 향기가 그립습니다. 기도하며 북녘의 배고픈 이를 생각하며 참회합니다. 봄이 오듯 통일의 그 날이 오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 함께함이 좋습니다. 늘 자리를 지켜주시는 독수리님들 덕분입니다.
- 어젠 몸살기로 푹 자고 쉬고나니 조금 회복되어 통일정진까지 함께 할수 있고 한걸음 뛰어 넘어 힘내어 봅니다. 봄이 오기전 더 춥다는 날씨에 현지에서 기도하시는 도반님들 덕분에 할수 있어 감사합니다. 통일에 염원이 북 쪽땅까지 닿아 나아가길 발원합니다.
- 어떠한 상황에서도 마음만 내면 함께 할수 있음에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우리의 염원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발원 합니다.





1월, 2월 신규후원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1. 1 – 2. 28)

000000002251	여경화	000000002269	신창연	000000002283	이진미
000000002261	신숙경	000000002270	이광용	000000002284	지서윤
000000002262	이순애	000000002271	박순희	000000002285	류자선
000000002263	이현미	000000002272	이은민	000000002286	황수정
000000002265	노란	000000002273	최현자	000000002287	황인경
000000002235	김희경	000000002274	박선희	000000002288	장윤정
000000002236	임진영	000000002275	윤소용	000000002289	이미희
000000002242	박병관	000000002276	강민주	000000002290	박현호
000000002243	노주형	000000002277	이은설	000000002291	김명자
000000002266	한은정	000000002278	임경희	000000002292	정수진
000000002267	김형국	000000002279	김영국	000000002293	박현님
000000002268	양기환	000000002282	고성임	000000002298	김남희

2021년 1월에 후원해주신 좋은벗들입니다

### [뉴스레터 후원]

김현희	류제표	오병찬	이선민	이중인	임성식	정선경	최성희	한승희
도윤주	박경숙	이규빈	이은경	이지은	정금도	정현숙	한병기	

### [일반후원회원]

강미정	강호일	고미숙	구규리	권태윤	김경란	김근식	김대철	김미경
강보길	강희석	고병엽	구미경	권호기	김경분	김금숙	김도영	김미경
강성연	강희선	고연화	구언연	권효순	김경실	김기연	김동환	김미영
강신준	건축사사	고정순	구자걸	금두희	김경애	김나경	김리원	김미자
강유진	무소식원	고지선	권미향	기모란	김경필	김나영	김 만	김민정
강재성	고경옥	고지안	권윤정	기세환	김경희	김남홍	김명주	김민정
강태경	고관규	곽도순	권이슬	길래현	김귀남	김남희	김명주	김민정
강현기	고광숙	곽봉준	권재영	길미숙	김규혁	김대순	김명희	김민정

김민중	김은수	김현숙	문태운	박주영	설정경	심흥아	오 택	이기남
김백수	김은아	김현우	민영희	박주영	성광지	안도연	오환석	이길엽
김병주	김은자	김현지	민춘희	박주하	성향아	안봉진	용채명	이길자
김봉환	김은희	김현지	박경석	박준경	소희주	안상호	우복덕	이덕기
김상원	김인식	김형숙	박경숙	박진현	손경연	안선영	우서정	이덕아
김석범	김인희	김형익	박경훈	박진현	손규만	안순희	우정석	이동우
김선경	김재규	김형희	박경희	박진희	손대성	안재성	원주빈	이두희
김선문	김재영	김홍희	박근영	박철웅	손영상	안재호	원준경	이두희
김선정	김재현	김화숙	박금옥	박태정	손영희	안정애	유수스님	이맘갓날아
김선희	김재호	김화영	박대식	박태희	손은숙	양경희	유옥경	이명숙
김성근	김재훈	김희경	박동주	박현숙	손재선	양계화	유우인	이명순
김성유	김정숙	김희준	박민경	박형준	손정숙	양기환	유은희	이명희
김성은	김정옥	남미희	박민식	박혜숙	송기형	양연수	유재성	이미나
김성진	김정윤	남연우	박민정	박홍남	송민령	양혜영	유정재	이미란
김성혜	김정임	남연이	박병진	박홍주	송민석	양희준	윤상석	이미희
김세일	김종복	남예린	박봉진	박희복	송봉섭	여경민	윤석황	이복승
김세호	김종순	노경미	박분숙	배명자	송승원	여경화	윤여훈	이봉자
김수녀	김종호	노기선	박상미	배미령	송영규	여현주	윤영실	이상건
김수훈	김종희	노 란	박상호	배상훈	송우형	오덕진	윤옥순	이상광
김숙녀	김주옥	노옥재	박선희	배선희	송전용	오명욱	윤은희	이상만
김순영	김주환	노은하	박성준	배준식	송태화	오문택	윤인숙	이상열
김순자	김지영	노주형	박수미	백강순	송필순	오미옥	윤재송	이상용
김승환	김지은	노지희	박수일	백단심	신강희	오미현	윤태순	이상필
김승희	김진권	드림앤	박순옥	백영일	신명순	오민정	윤태욱	이상현
김애경	김진민	안양지점	박순천	백용대	신미란	오병찬	윤혜숙	이서현
김양지	김찬우	류석현	박승우	백혜은	신봉월	오성일	이갑성	이선경
김영실	김창민	류제표	박승효	법륜스님	신순숙	오세준	이경례	이선민
김영진	김창수	류지선	박애란	서석민	신순임	오세철	이경숙	이선호
김용철	김창진	문귀숙	박영주	서영란	신주호	오윤지	이경향	이성미
김원달	김하정	문기호	박윤호	서영홍	신현희	오재민	이경화	이소현
김원태	김학련	문보빈	박은아	서예랑	신혜정	오정숙	이경희	이순애
김월금	김해영	문성해	박인경	서주연	심연우	오정택	이광용	이순자
김유연	김 향	문예진	박재현	서창무	심지윤	오지인	이규빈	이승용
김은경	김향숙	문은영	박정수	석선정	심지현	오진미	이근진	이시훈
김은란	김 혁	문지영	박정옥	설민영	심진희	오진환	이금림	이연순

이연순	이정순	임순옥	정경숙	정영수	조해숙	최다루한	하연숙	현정련
이영	이정임	임윤석	정경희	정용구	조 협	최동호	하지유	현효용
이영미	이중인	임진영	정구락	정월향	조혜정	최민서	한규매	호수경
이영미	이지은	임 철	정근혜	정유진	조희옥	최병숙	한대식	홍기철
이영숙	이지현	임혜진	정다영	정윤화	주동규	최복희	한동필	홍미경
이영애	이진미	장경원	정란희	정점순	주선우	최상민	한명희	홍지예
이영익	이참한	장도연	정명화	정정관	지명자	최선희	한미경	홍진숙
이영휘	이창수	장미애	정미숙	정정영	지민규	최세열	한병기	황수정
이오영	이창희	장성심	정미숙	정정희	지상금	최수지	한상훈	황은단
이원석	이철호	장세만	정보성	정현숙	지서윤	최영일	한승희	황인경
이원제	이판오	장영주	정선경	정현태	지은아	최영자	한용탁	황인조
이유철	이향애	장윤정	정선영	정혜윤	지은정	최원석	한의규	황진희
이은경	이현주	장정화	정성아	조경희	지현숙	최장희	한지연	황화숙
이은경	이혜경	장창호	정수희	조세분	진광자	최정연	한태숙	
이은영	이혜원	장효숙	정순자	조수진	차영석	최정희	함정호	
이응노	이화경	전귀재	정순진	조시현박	채수연	최지원	허미혜	
이 인	이화승	전미선	정안수	해 광	채희주	최진연	허영숙	
이재문	이효산	전병찬	정안숙	조연정	천성필	최현서	허은희	
이재숙	임도영	전우성	정언모	조영구	최경민	최현숙	허 준	
이재하	임미순	전윤숙	정연아	조영희	최광수	하기완	허진도	
이정민	임수신	전윤숙	정영미	조정희	최기진	하선아	현순희	

### [좋은이웃되기]

강문현	곽도순	금두희	김남선	김봉환	김승호	김이루다	김필선	남연이
강보길	구영모	길래현	김도연	김분주	김승환	김인식	김한수	노경미
강성비	구영희	길현배	김동윤	김선경	김영숙	김재현	김한영	노 란
강은숙	구자걸	김가빈	김명수	김선문	김영순	김정실	김향숙	노주형
강회배	구현오	김경선	김명신	김선정	김영자	김지성	김현정	노혜원
고성임	권교중	김경현	김미경	김성열	김영진	김지훈	김현주	노희산
고장준	권선옥	김국환	김민범	김수진	김완진	김춘희	김현지	류민경
고정순	권지웅	김규희	김민정	김수현	김윤범	김태욱	김혜영	류제표
고현정	금동숙	김나형	김민정	김순정	김의경	김태희	김혜정	문경자

문보빈	박준경	안선영	이동규	이 은	이철호	전은수	지명자	한병기
문성해	박태희	안소연	이동우	이은경	이필영	전정숙	지영우	한상윤
문예진	박현실	양미진	이만영	이은우	이향애	전형지	천인근	한승희
문정희	박형준	양지연	이명우	이 인	이화경	전혜준	최경민	한운호
민춘희	박흥주	양홍심	이미경	이인숙	이희자	전혜진	최경임	한정수
민현주	방미영	엄지선	이미애	이일현	인미화	정금도	최금자	한정현
박경숙	배미령	오병찬	이방숙	이재관	임경란	정성호	최동숙	한지연
박남주	배정기	오성일	이복순	이점순	임수신	정성희	최복희	함정호
박명복	백강순	오윤주	이봉자	이정남	임은숙	정순자	최성희	허종보
박선경	백동화	오정택	이상한	이정남	임지영	정원자	최순희	홍경희
(법성스님)	변종임	용채명	이상현	이정민	임진영	정은영	최양님	홍순연
박세미	서성희	위라미	이서영	이정순	임현식	정지안	최영화	홍옥희
박수영	서양숙	유남욱	이서현	이정원	임희경	정지윤	최원석	홍효정
박순우	설은자	유두진	이선민	이정은	장말자	정현숙	최은숙	황경석
박순화	성혜정	유정재	이성애	이종승	장서우	조경희	최인미	황수진
박영덕	손영희	윤득기	이수민	이종필	장수빈	조남국	최한구	황승오
박영아	송봉섭	윤여동	이 영	이중인	장시은	조세분	최현미	황연주
박윤정	송선희	윤정호	이영임	이지은	장지만	조은서	최현숙	황지영
박은아	송승원	이경선	이외숙	이지인	장희정	조재익	최현이	MATSUHASHI
박인환	송태화	이규빈	이원우	이지현	전보명	조주호	하연숙	SACHIYO
박재범	신보영	이남운	이유철	이진겸	전외자	조희옥	하재남	
박정숙	심지윤	이다혜	이윤정	이창희	전우성	주정란	한건우	

### [평화지킴이]

강득록	강정숙	권두한	길미숙	김나경	김동욱	김미정	김봉환	김수영
강문현	강혜인	권순범	길현배	김나현	김동원	김미현	김서은	김수현
강보길	고광숙	권순환	김갑우	김남심	김만태	김민기	김선경	김승환
강복웅	고정순	권태억	김경란	김대식	김명숙	김민정	김선문	김양숙
강옥선	곽성일	권혜진	김경률	김대익	김미경	김민정	김선옥	김영숙
강은주	구미선	금두희	김국희	김덕운	김미란	김민지	김선정	김영은
강인숙	구자걸	길래현	김기홍	김동식	김미옥	김보경	김수안	김영진

김완진	남연이	박종훈	손영희	오정택	이상현	이진영	정금도	최인규
김용석	노경미	박주경	송민선	오진환	이새롬	이창희	정영숙	최정희
김용표	노 란	박준경	송병순	오훈철	이서영	이철호	정은영	최현숙
김용현	노현승	박태정	송봉섭	용채명	이서현	이태희	정태임	최화심
김은미	대산향도선	박태희	송선희	우순점	이선민	이필영	정현숙	추순옥
김은정	사조성민	박하나	송승원	우영옥	이숙형	이항애	정희숙	하연숙
김인식	류제표	박현실	송은화	유나경	이순길	이혜림	조경희	한병기
김인영	문보빈	박현주	송태화	유정재	이순모	이화경	조세분	한서연
김재현	문예진	박현주	신미경	유창연	이영희	이희자	조수월	한승희
김재호	문현숙	박형준	신미혜	유현복	이오영	임수신	조수진	한용탁
김정길	민춘희	박혜숙	신민경	유현정	이유진	임지영	조유진	한정수
김정원	박경숙	박홍주	신상룡	윤명선	이유철	임진영	조은미	한종엽
김정칠	박경옥	방미경	심지윤	윤영희	이윤정	임채남	조정미	한지연
김종애	박남주	방미영	안순주	윤정호	이은경	임현식	조정민	한지혜
김종진	박민주	방찬희	안영민	윤호숙	이응노	장말자	조희옥	함정호
김종태	박병관	배미령	안원봉	이경수	이 인	장 미	주문돈	허종보
김중광	박성미	배준식	안인옥	이경철	이일현	장서우	지명자	허 준
김지영	박성수	백강순	안재성	이경희	이재관	장수빈	지현우	현재근
김창우	박소연	백정숙	양승용	이경희	이재호	장용창	채귀훈	현희련
김춘화	박순화	변애란	양은희	이경희	이점순	장희정	채지영	홍상수
김판신	박영아	서동찬	여인욱	이규빈	이정민	전병철	천승영	홍진숙
김해영	박윤정	서석민	예병우	이동건	이정민	전부연	최경민	황경석
김향숙	박은아	서수정	예상희	이동우	이정순	전성일	최복희	황광철
김향희	박인경	설은자	예찬순	이두희	이정원	전영은	최수화	황미경
김형규	박인숙	성경직	오병찬	이미경	이정희	전우성	최순환	황순옥
김형준	박재범	성창화	오성일	이봉자	이준석	전지호	최영선	황유진
김혜정	박정임	세 웅	오세풍	이상건	이중인	전형지	최영일	MATSUHASHI
김효심	박정태	손동석	오윤주	이상자	이지은	정경순	최영화	SACHIYO
김희경	박종보	손상우	오은경	이상필	이지현	정귀임	최원석	

## 2021년 2월에 후원해주신 좋은벗들입니다

### [뉴스레터 후원]

김현희 도윤주	류제표 박경숙	성명 오병찬	이규빈 이선민	이은경 이중인	이지은 임성식	정금도 정선경	정현숙 최성희	한병기 한승희
------------	------------	-----------	------------	------------	------------	------------	------------	------------

### [일반후원회원]

강미정	고지선	김경필	김명희	김세호	김은자	김창수	남연우	박경석
강민주	고지안	김경희	김미경	김수녀	김은희	김창진	남연이	박경숙
강보길	곽도순	김경희	김미경	김수훈	김인식	김하정	남예린	박경훈
강성연	곽봉준	김귀남	김미영	김숙녀	김인희	김학련	노경미	박경희
강신준	구규리	김규혁	김미자	김순영	김재규	김해영	노기선	박근영
강유진	구미경	김근식	김민정	김순영	김재영	김해인	노 란	박금옥
강재성	구언연	김금숙	김민정	김순자	김재현	김 향	노옥재	박대식
강태경	구자걸	김기연	김민정	김승환	김재호	김향숙	노은하	박동주
강현기	권미향	김나경	김민정	김승희	김재훈	김 혁	노주형	박민경
강호일	권윤정	김나영	김민중	김애경	김정숙	김현숙	노지희	박민식
강희석	권이슬	김나현	김백수	김양지	김정옥	김현우	드림앤	박병진
강희선	권재영	김남홍	김봉환	김영국	김정윤	김현지	안양자점	박봉진
건축사사	권태윤	김남희	김상원	김영실	김종복	김현지	류석현	박분숙
무소석원	권호기	김남희	김석범	김영진	김종순	김형국	류제표	박상미
고경옥	권효순	김대순	김선경	김용철	김종희	김형숙	문귀숙	박상호
고관규	금두희	김대철	김선문	김원달	김주옥	김형익	문기호	박선희
고광숙	기모란	김도영	김선정	김원태	김주환	김형희	문보빈	박선희
고미숙	기세환	김동환	김선희	김월금	김지영	김홍희	문성해	박성준
고병엽	길미숙	김리원	김성유	김유연	김지은	김화숙	문예진	박수미
고성임	김경란	김 만	김성은	김은경	김진권	김화영	문은영	박수일
고연화	김경분	김명자	김성진	김은란	김진민	김희경	문지영	박순옥
고은별	김경실	김명주	김성혜	김은수	김찬우	김희준	문태운	박순천
고정순	김경애	김명주	김세일	김은아	김창민	남미희	민영희	박순희

박승우	백혜은	신순숙	오민정	윤인숙	이상현	이정순	장창호	정정영
박승효	법륜스님	신순임	오병찬	윤재송	이서현	이정임	장효숙	정정원
박애란	서석민	신주호	오성일	윤태순	이선경	이중인	전귀재	정정희
박영주	서영란	신창연	오세준	윤태욱	이선민	이지은	전미선	정현숙
박윤호	서예랑	신현희	오세철	윤혜숙	이선호	이지현	전병찬	정현태
박은아	서주연	신혜정	오재민	이갑성	이성미	이참한	전우성	정혜윤
박인경	서창무	심연우	오정숙	이경숙	이소현	이창수	전윤숙	조경희
박재현	석선정	심지윤	오정택	이경향	이순애	이창희	전윤숙	조금연
박정수	설민영	심지현	오지인	이경화	이순자	이철호	정경숙	조세분
박정옥	설정경	심진희	오진미	이경희	이승용	이판오	정경희	조수진
박주영	성광지	심홍아	오진환	이광용	이시훈	이향애	정구락	조시현박
박주영	성향아	안도연	오 택	이규빈	이연순	이현주	정근혜	해 광
박주하	소희주	안봉진	오환석	이근진	이연순	이혜경	정다영	조연정
박준경	손경연	안상호	옹채명	이금림	이 영	이혜원	정란희	조영구
박진현	손규만	안선영	우복덕	이기남	이영미	이화경	정명화	조영희
박진희	손대성	안순희	우서정	이길엽	이영미	이화승	정미숙	조정희
박철웅	손영상	안재성	우정석	이길자	이영숙	이효산	정미숙	조해숙
박태정	손영희	안재호	원주빈	이덕기	이영애	이희자	정보성	조 협
박태희	손은숙	안정애	원준경	이덕아	이영의	임경희	정선경	조혜정
박현님	손재선	양경희	유수스님	이동우	이영휘	임도영	정선영	조희옥
박현숙	손정숙	양계화	유애경	이두희	이오영	임미순	정성아	주동규
박현호	송기형	양기환	유옥경	이두희	이원석	임수신	정수진	주선우
박형준	송민령	양연수	유우인	이명숙	이원제	임순옥	정수희	지명자
박혜숙	송민석	양진주	유윤식	이명순	이유철	임윤석	정순자	지민규
박흥남	송봉섭	양창호	유은희	이명희	이은경	임진영	정순진	지상금
박흥주	송승원	양혜영	유재성	이미나	이은경	임 철	정안수	지서윤
박희복	송영규	양희준	유정재	이미란	이은민	임혜진	정안숙	지은아
배명자	송우형	여경민	윤상석	이복승	이은설	장경원	정연아	지은정
배미령	송전용	여경화	윤석황	이봉자	이은영	장도연	정영미	지현숙
배상훈	송태화	여현주	윤소용	이상건	이응노	장미애	정영수	진광자
배준식	송필순	오덕진	윤시명	이상광	이 인	장성심	정용구	차영석
백강순	신강희	오명욱	윤여훈	이상만	이재문	장세만	정월향	채수연
백단심	신명순	오문택	윤영실	이상열	이재숙	장영주	정윤화	채영운
백영일	신미란	오미옥	윤옥순	이상용	이재하	장윤정	정점순	채희주
백용대	신숙경	오미현	윤은희	이상필	이정민	장정화	정정관	천성필

최경민	최복희	최장희	하기완	한명희	한의규	허 준	홍지예
최광수	최상민	최정연	하선아	한미경	한지연	허진도	홍진숙
최기진	최선희	최정희	하연숙	한병기	한태숙	현순희	황은단
최다루한	최수지	최지원	하지유	한상훈	함정호	현정련	황인조
최동호	최영일	최진연	한규매	한승희	허미혜	현효용	황진희
최민서	최영자	최현서	한대식	한용탁	허영숙	호수경	황화숙
최병숙	최원석	최현숙	한동필	한은정	허은희	홍미경	

### [좋은이웃되기]

강득록	김경현	김영국	남연이	박순희	손영희	윤득기	이영임	이진겸
강문현	김국환	김영숙	노경미	박영덕	손익련	윤소옹	이외숙	이창희
강보길	김규희	김영순	노 란	박영아	송미해	윤여동	이원우	이철호
강성비	김나형	김영자	노주형	박윤정	송봉섭	윤정호	이유철	이필영
강은숙	김남선	김영진	노혜원	박은아	송선희	이규빈	이윤정	이향애
강화평화	김도연	김완진	노희산	박인환	송승원	이남운	이 은	이현미
전망대기도	김동윤	김윤범	류민경	박재범	송태화	이다혜	이은경	이화경
강회배	김명수	김의경	류제표	박정숙	신보영	이동규	이은우	이희자
고성임	김명신	김이루다	문경자	박준경	심지윤	이동우	이 인	인미화
고장준	김미경	김인식	문보빈	박태희	안선영	이만영	이인숙	임경란
고정순	김민범	김재현	문성해	박현님	안소연	이명우	이일현	임수신
고현정	김민정	김정실	문예진	박현실	양미진	이미경	이재관	임은숙
곽도순	김민정	김지훈	문정희	박형준	양지연	이미애	이점순	임지영
구영모	김봉환	김춘희	민현주	박흥주	양흥심	이방숙	이정남	임진영
구영희	김분주	김태희	박경숙	방미영	엄지선	이복순	이정남	임현식
구자결	김선경	김필선	박남주	배미령	오병찬	이봉자	이정민	임희경
구현오	김선문	김한수	박명복	배정기	오성일	이상한	이정순	장말자
권교중	김선정	김한영	박선경	백강순	오윤주	이상현	이정은	장서우
권지웅	김성열	김향숙	(법성스님)	백동화	오정택	이서영	이종승	장수빈
금동숙	김수진	김현정	박선희	변종임	용채명	이서현	이종필	장시은
금두희	김수현	김현주	박세미	서성희	위라미	이선민	이중인	장지만
길현배	김순정	김현지	박수영	서양숙	유남욱	이성애	이지은	장희정
김가빈	김승호	김혜영	박순우	설은자	유두진	이수민	이지인	전보명
김경선	김승환	김혜정	박순화	성혜정	유정재	이 영	이지현	전외자

전우성	정순자	조남국	지명자	최성희	최현미	한승희	홍경희	MATSUHASHI
전은수	정원자	조세분	지영우	최순희	최현숙	한운호	홍순연	SACHIYO
전정숙	정은영	조순봉	천인근	최양님	최현이	한은정	홍옥희	
전혜준	정지안	조은서	최경민	최영화	하연숙	한정수	홍효정	
전혜진	정지윤	조재익	최경임	최원석	하재남	한정현	횡경석	
정금도	정충호	조주호	최금자	최은숙	한건우	한지연	횡수진	
정성호	정현숙	조희옥	최동숙	최인미	한병기	함정호	횡연주	
정성희	조경희	주정란	최복희	최한구	한상윤	허종보	횡지영	

### [평화지킴이]

강득록	김갑우	김민정	김용표	김향희	박선희	박현실	손상우	양은희
강문현	김경률	김민정	김용현	김형규	박성수	박현주	손영희	여인욱
강보길	김국희	김반야솔	김은미	김형준	박소연	박현주	송민선	예병우
강복웅	김기성	김보경	김은정	김혜정	박순화	박형준	송병순	예상희
강옥선	김기홍	김봉환	김인식	김효심	박순희	박혜숙	송봉섭	예찬순
강은주	김나경	김서은	김인영	김희경	박영아	박흥주	송선희	오병찬
강인숙	김나현	김선경	김재현	남연이	박윤정	방미경	송승원	오성일
강정숙	김남심	김선문	김재호	노경미	박은아	방미영	송은화	오세풍
강혜인	김대식	김선옥	김정길	노 란	박인경	방찬희	송태화	오윤주
고광숙	김대익	김선정	김정원	대산향도선	박인숙	배미령	신금년	오은경
고정순	김덕운	김수안	김정칠	사조성민	박재범	배준식	신미경	오정택
곽성일	김동식	김수영	김종애	류제표	박정임	백강순	신미혜	오진환
구자걸	김동욱	김수현	김종진	문보빈	박정태	변애란	신민경	오훈철
권두한	김동원	김승환	김종태	문영일	박종보	서동찬	신상룡	용채명
권순범	김만태	김양숙	김중광	문예진	박종훈	서석민	심지윤	우순점
권순환	김명숙	김영국	김지영	문현숙	박주경	서수정	안순주	우영옥
권태억	김미경	김영숙	김창우	박경숙	박준경	설은자	안영민	유나경
권혜진	김미란	김영은	김준화	박경옥	박태정	성경직	안원봉	유정재
금두희	김미옥	김영진	김판신	박남주	박태희	성창화	안인옥	유창연
길미숙	김미현	김완진	김해영	박민주	박하나	세 웅	안재성	유현복
길현배	김민기	김용석	김향숙	박병관	박현님	손동석	양승용	유현정

윤명선	이상자	이은경	이창희	장수빈	정희숙	최경민	한서연	황광철
윤소용	이상필	이응노	이철호	장용창	조경희	최복희	한승희	황복현
윤정호	이상현	이 인	이태희	장희정	조세분	최수화	한용탁	황순옥
윤호숙	이새롬	이일현	이필영	전병철	조수월	최순환	한은정	황유진
이경수	이서영	이재관	이향애	전부연	조수진	최영선	한정수	MATSUHASHI
이경철	이서현	이재호	이혜림	전성일	조유진	최영일	한종엽	SACHIYO
이경희	이선민	이점순	이화경	전영은	조은미	최영화	한지연	
이경희	이수경	이정민	이희자	전우성	조정미	최원석	한지혜	
이경희	이숙형	이정민	임수신	전지호	조정민	최인규	함정호	
이규빈	이순길	이정순	임지영	정경순	조희옥	최정희	허종보	
이동건	이순모	이정희	임진영	정귀임	주문돈	최현숙	허 준	
이동우	이영희	이준석	임채남	정금도	지명자	최현자	현재근	
이두희	이오영	이중인	임현식	정영숙	지원우	최화심	현희련	
이미경	이유진	이지은	장말자	정은영	채귀훈	추순옥	홍상수	
이봉자	이유철	이지현	장 미	정태임	채지영	하연숙	홍진숙	
이상건	이윤정	이진영	장서우	정현숙	천승영	한병기	황경석	

## (사) 좋은벗들 가족이 되어주세요

###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사) 좋은벗들이 만들어가는 통일세상에 소중한 씨앗을 뿌려주세요.  
씨앗 하나하나가 모여 평화롭고 갈등 없는 한반도를 만들어갑니다.

### 후원회비는 이렇게 내세요

- CMS자동이체를 이용하여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 CMS를 이용하면 자동이체처럼 간편하게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 CMA 신청은 좋은벗들 홈페이지 참여마당의 후원신청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 소식지 뒷면에 있는 후원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사)좋은벗들에 주시거나 FAX로 보내주세요.
- 자동이체를 이용하여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예금주 : 사단법인 좋은벗들]
  - 국민은행 086-25-0021-251      • 농 협 100080-51-038056
- 후원과 관련된 모든 문의는  
TEL. 02-587-8996 / FAX. 02-581-4071(좋은벗들)

# (사) 좋은벗들 후원회원 가입신청서

\*필수입력 항목 표시입니다.

<b>*성명</b>		<input type="checkbox"/> 개인	<input type="checkbox"/> 사업자(단체)
주민등록번호 (연말 소득공제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은 기재해 주세요)			
<b>*주소 우)</b>		소식지 구독여부	<input type="checkbox"/> 수신함 <input type="checkbox"/> 수신 안함
이메일		<b>*전화 ☎</b>	
<b>*후원금액</b> <input type="checkbox"/> 매월 <input type="checkbox"/> 일시불 /		월	
<b>*후원종류</b> <input type="checkbox"/> 일반회원 <input type="checkbox"/> 좋은이웃되기 <input type="checkbox"/> 평화지킴이			
<p>본인은 좋은벗들의 설립취지와 사업목적에 동의하여 후원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또한 본인의 후원금이 좋은벗들의 일체의 목적사업비나 운영비로 쓰임에 동의합니다.</p>			
		20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b>*납부방법</b> <input type="checkbox"/> CMS자동이체 (좋은벗들에 자동이체 위임)			
<b>*CMS자동이체 동의서</b> CMS 출금이체는 금융결제원을 통해 약정 후원금을 인출계좌에서 좋은벗들의 후원계좌로 정기적으로 자동이체하는 시스템입니다.			
<b>*출금은행</b>		<b>*출금계좌</b>	
<b>*예금주</b>		<b>*예금주 서명</b> (후원신청인과 다를 경우)	
<b>*예금주 생년월일</b>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		<b>*예금주 핸드폰번호</b> (후원신청인과 다를 경우)	
<b>*출금일</b> <input type="checkbox"/> 10일 <input type="checkbox"/> 25일 <input type="checkbox"/> 30일 (출금일에 잔고부족 등의 이유로 미출금 된 경우, 다음 출금일에 한해 재출금됩니다.)		위와 같이 후원금 자동이체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사) 좋은벗들은 후원회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사) 좋은벗들은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으로 보유하고 활용합니다.

\*후원회원께서는 아래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제공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동의>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이용목적	수집항목	이용기간
회원가입 및 관리, 기부금영수증발급, 후원금 수납	성명, 주민등록번호, 후대전화, 이메일, 주소, 예금주명, 예금주 생년월일, 은행명, 후원금 출금 계좌번호, 가드번호, 카드유효기간	동의일부터 탈퇴일 이후 5년

거부권리 및 불이익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할 경우 회원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 <고유식별번호 수집 및 이용 동의>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이용목적	수집항목	이용기간
기부금영수증 발급,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제공	주민등록번호	동의일부터 탈퇴일 이후 5년

거부권리 및 불이익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할 경우 회원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 등 제3자 업무위탁에 대한 동의>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수탁업체	위탁업무 내용	제공정보	이용기간
금융결제원 (주)나이스페이 (주)휴먼소프트웨어 (주)오즈메일러 국세청	CMS 출금이체 승인 및 정산, 후원금 결제, 회원관리, 온라인서비스, 기부금영수증 온라인 발행, 문자 및 이메일 발송,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예금주명, 예금주 생년월일, 은행명, 후원금 출금 계좌번호, 가드번호, 카드유효기간, 성명, 주민등록번호, 후대전화, 이메일, 주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 단, 기부금영수증 발행 등을 위해 관계 법령에서 정한 일정 기간 동안 개인정보와 후원금 결제정보 보관(5년, 후원 중단시부터)

거부권리 및 불이익 귀하는 개인정보 등 제3자 업무위탁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할 경우 회원가입, CMS 출금이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좋은벗들은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귀하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CMS 출금이체 약관 동의>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좋은벗들은 CMS 출금이체를 이용하여 지정출금계좌에서 지정한 출금일에 약정한 금액의 후원금을 납부하겠습니다.

만일 출금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좋은벗들과 협의하여 출금은행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동의합니다.

## <금융거래정보 제공 동의>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본 신청과 관련하여 본인은 금융거래정보를 출금이체를 신규 신청하는 때로부터 해지 신청할 때까지 상기 수납기관, 전자금융업자 및 좋은벗들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금융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과 전자금융거래법의 규정에 따라 동의합니다.



좋은벗들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주신  
회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좋은벗들이 만들어가고자 하는  
평화로운 세상,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 하는 삶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있으신 분은 시간으로,  
돈이 있으신 분은 돈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함께하는 여러분께  
마음 속의 사랑을 선물로 드립니다.